

형 가 리

I. 일반개황

면 적	93 천 Km ²	G D P	834 억 달러(2003)
인 구	10.1백만 명(2003)	1 인 당 GDP	8,295 달러(2003)
정 치 체 제	내각 책임제	통 화 단 위	Forint
대 외 정 책	Euro 통화 가입(2010년)	환 율(달러당)	224.31 (2003)

- 동구권에선 가장 이른 1980년대 후반부터 체제전환을 시작하였고, EU·OECD, 여타 국제기구들로부터 선도적 체제전환국으로 평가받고 있음. OECD(1990), NATO(1999)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 1일 EU 가입.
- 동국은 안정된 정치 및 경제환경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수출경쟁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그밖의 사회불안 요인도 별로 없으며, 양호한 국제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 동향

- 경제성장률 : 2003년도 2분기 성장률이 6년만에 최저치인 2.4%를 기록한 것을 비롯 연간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3.5%보다 낮은 3.24%에 머물러 전년 대비 0.8% 포인트 하락하였음. 이는 큰 폭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가 부진하였고, 재정적자 관리를 위한 긴축기조로 내수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함.

- 그러나 2004년 들어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치 3.5%를 훨씬 넘는 4.2%를 시현하였고 기업의 투자도 5년만에 최고 수준인 18.9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2분기 이후에도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2004년 정부 목표치 3.6%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.

<표 1>

주요 국내경제지표

단위 : %

구 분	2000	2001	2002	2003 ^e	2004 ^f
경제성장률	5.2	3.8	3.3	3.2	3.6
재정수지/GDP	-3.4	-3.0	-9.2	-5.9	-5.3
소비자물가상승률	9.8	9.2	5.3	4.6	6.7

자료: EIU, Country Report.

- **물가** : 2003년 5월중 인플레이션이 지난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3.6%를 기록하는 등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.6%에 그쳐 체제 전환 이래 처음으로 5% 이내로 들어 왔음.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축 및 고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, 2003년 정부의 경제운용 성적중 가장 높 이 평가할만한 부문이며, 올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6.7%로 전년보다 다 소 높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목표치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- 반면, 정부는 금년도 정부부문의 실질소득 증가 상한선을 1%, 민간부문도 8% 이내로 정하고 있어 2002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10%를 넘었던 것을 고 려할 때 내수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움. 중앙은행이 내수진작을 위해 금년들어 3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긴 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아 2004년 역시 수출이 내수를 커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짐.
- **재정수지** : EIU 추정에 의하면 2003년 재정수지적자는 정부의 연초 목표치 4.5%를 훨씬 상회하는 5.9%인 것으로 나타났음. 이는 2002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추진의 후유증과 특히, 10% 정도의 포린트화 평가절하가 재정 적자 확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.
- 2003년 재정적자 방어에 실패한 정부는 연초에 2004년도 재정적자 목표를

GDP의 3.8%로 보다 신중하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/4분기 재정적자가 예상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최근 4.6%로 목표를 다시 수정하였음.

2. 경제구조

- 서비스업이 62.1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제조업(33.8%), 농수산업(4.1%)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**제조업 비중 다시 상승** : 동국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동구권에서는 가장 이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고, 1988년 GDP의 약 42%를 차지하였던 제조업 비중은 체제전환이 진행되면서 1996년에는 32%로 낮아졌으나, 동국은 EU 기업들의 부품생산 및 조립생산 기지의 역할에 특화하는 산업전략에 따라 제조업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. 또한 서비스 분야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2000년에는 GDP의 62%, 전체고용의 60%를 차지하여 동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.

3. 경제정책

- **점진적 개혁정책 추진** : 헝가리는 1968년 소위 신경제 메카니즘(NEM)을 도입하는 등, 구체제 시절부터 점진적 경제변혁을 시도하여 왔으며, 1989년 체제전환 이후에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포린트화의 태환성 부여, 인플레이션 억제 등 점진적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중,동구 국가중 가장 모범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룬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.
- **2010년 유로존 가입 목표** : 올해 초 정부는, 2008년까지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2.7%, 인플레이션 3%, 구매력기준 1인당 GDP를 기존 15개 EU회원국의 60%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 2010년 유럽통화동맹(EMU)에 가입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임.

4. 대외거래 동향

<표 2>

주요 국제경제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0	2001	2002	2003e	2004f
경 상 수 지	-2,900	-1,754	-2,644	-7,346	-6,900
경상수지/GDP	-6.2	-3.4	-4.1	-8.8	-6.8
상 품 수 지	-2,913	-2,237	-2,119	-3,364	-3,400
수 출	28,762	31,081	34,792	43,208	53,200
수 입	31,675	33,318	36,911	46,572	56,600
외환보유고	10,915	10,302	9,721	12,015	..
총외채잔액	29,520	30,305	34,958	42,358	53,300
총외채잔액/GNP	65.4	60.2	54.4	50.8	..
D. S. R.	22.1	34.4	33.9	15.6	..

자료 : EIU

- **경상수지 적자는 감소 전망** : 동국은 일찍부터 적극적인 대외개방에 나선 결과 교역규모가 GDP의 130%에 이르고 있으나, 반제품 가공을 통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·부자재 수입에 따른 상품수지의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 GDP 규모의 지속적 성장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와 투자소득수지부문의 개선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2004년 6.8%, 2005년에는 5.6%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.
- **FDI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** :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내수경기 또한 부진하여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던 FDI 유입이 2004년 들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. 이는 동국의 실물경기가 호전되고 있고 그동안 투명성결여로 투자자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투자유인책 (Smart Hungary Plan)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에 기인함.
- **외채는 증가세** : 2003년 말 기준 총 외채잔액은 약 424억달러로 2002년 대비 74억달러가 증가하였음. 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외화차입과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고금리정책 견지로 민간기업의 해외차

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.

- GNI 대비 총외채잔액의 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외채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. 더욱이 유럽통화동맹(EMU) 가입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, FDI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될 것임. 2003년 DSR은 수출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2002년보다 대폭 축소된 15.6%로 추정됨.

Ⅲ. 정치 · 사회 동향

1. 체제 전환 이후 정치적 안정 유지

- 1989년 체제전환 이후 동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적 절차가 유지되고 중·동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. 여·야의 격렬한 정치적 대립이 있기도 했으나 정당간 이합집산도 비교적 적었으며, 모든 정부가 중도하차 없이 임기를 마쳤음.
- 2002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청년민주연합(Fidesz-HCP)이 연임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사회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음. 그러나 자유민주연합(AFD)과 연정을 구성한 사회당 정부는 386석의 의석중 51%인 198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정국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.
- **여당 지지율 하락** : 2003년 하반기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사회당의 지지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대 야당인 Fidesz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음. 이는 집권여당의 잇따른 정책실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, 2004년 들어서도 연초부터 공공요금, VAT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증가, 주택론 축소 등 서민생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사회당의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큼.
- **EU 가입은 동국 정치에 긍정적 영향 기대** : 체제전환 이후 매 4년마다 집권당이 바뀌는 와중에서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정쟁이 계속되어 온 동국 정치가 서구 정치의 타협에 이르는 기술을 습득할 계기가 되는 동시에 사회

제반 분야가 보다 투명해져 그만큼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이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EU 가입은 동국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2. 사회적으로 안정

- 경제발전과 함께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간 갈등 요인은 있으나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은 없음.

3. 양호한 국제관계

- 유럽 일원으로서의 복귀를 국가 최대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, 나토, EU 등 유럽 대서양 통합기구 가입, 인접국들과의 우호친선관계 유지, 인접국 거주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익보호가 대외정책의 3대 기조임.
- 1955년 UN 가입, 1973년 WTO 설립에 참여, 1982년 IMF와 World Bank 가입, 1988년 유럽공동체(EC)와 무역 및 상호협력협정체결, 1991년 EBRD 설립에 참여, 1996년 OECD 가입, 1997년 IEA 가입, 1999년 NATO 가입, 2004년 EU 가입 등 국제관계 유지에도 적극적임.

IV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

1. 국제신인도 및 ECA 지원 태도

- Moody's는 2000년 11월 동국의 장기채무등급을 A3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2002년 11월 다시 A1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, S&P는 동국의 장기채무등급을 2000년 2월 BBB+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12월 다시 A-로 상향조정하였음.
- 주요 ECA들은 헝가리에 대해 별다른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음.

2.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

- I.C.R.G : 39/140 (2003.9) → 43/140 (2004.5)
- Euromoney : 35/185 (2003.9) → 36/185 (2004.3)
- II : 31/172 (2003.9) → 37/172 (2004.3)
- OECD : 2등급 (2003.1) → 2등급 (2004.1)

3. 외채 상황 태도

- 채무연체나 리스케줄링 사례 없음.
- 동국의 외채규모는 GNP의 50%대로 다소 과중한 편이나 양호한 국가신인도를 바탕으로 한 외화차입능력을 고려할 때, 외채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.

V. 종합의견

- 2004년 1/4분기 경제실적이 수출과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기대치보다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실물경기가 지난 2년간의 침체를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.
- 집권 여당인 사회당의 지지도가 2003년 하반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최근 EU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이 47%를 획득, 41%를 얻은 여당에 승리함으로써 여당의 정국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, EU 가입에서도 나타났듯이 유로존 가입 등 유럽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거시적 틀 안에서는 여야간의 갈등은 크지 않음.

[김판수]